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신문

총기 49년  
2020년 10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4년 제 251 호

## 통리원장 등 불교계 지도자 청와대 초청 문 대통령, 방역 모범 감사... 지속적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에 이어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두 번째 초청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13명의 지도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법회와 행사를 자발적

으로 중단하면서 방역에 솔선수범하며 실천해준 불교계에 먼저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의 심성으로 녹아있다.”며 “코로나에 맞서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사찰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에 앞장서왔다.”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범요식을 연기하고, 지난 5월에

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연등회 또한 전격 취소했다.”고 “화합과 평화의 연등 행렬은 볼 수 없었지만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줬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오는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앞두고 연등회 취소는 더욱 용단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인들이 우리 불교 정신과 문화의 참된 가치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언급하면서 “불교계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해주었다.”며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교계 지도자를 대표해서 초청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로 조계종 종정인 진제 대선사가 친필로 ‘만고휘연(萬古徽然)’이라고 쓴 휘호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만고휘연은 무한 세월 동안 영원히 광명하다는 뜻으로 전대미문의 국가적 어두운 위기를 밝은 지혜로 물리쳐 국민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휘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자리에서 ‘세계의 평화, 국민의 안녕과 건강,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기도’를 다 함께 읊었다.



종조 원정 대성사 40주기 멸도절 추선법회에서 종조전에 훈향 정공과 헌화중이다. 사진=전서호 기자

## “강림하시어 흠향 하시옵소서”

총기 49년 9월 8일 종조 원정 대성사 40주기 멸도절을 맞이하여, 대성사를 추선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추선법회가 총본산인 서울 역삼동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승직자 위주로 간소하지만 더욱 잠엄하게 봉행됐다.

종령 범공 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참석한 승직자와 교도들은 원정대성사의 진영에 향과 꽃을 올리며 유훈을 되새겼다.

종령 범공 대종사는 “오늘 종조님의 열반일을 맞이해 다시 한 번 웃길을 여미고 승단과 교단, 모두가 하나 돼 종조님의 열반을 추선함은 물론, 종단의 유구한 발전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하며 다 함께 수행정진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고 법문했다.

<관련사진 11면>

## 총기 49년 추계 강공회 10월 29일 개최

총지사서 13일, 열반스승 추선법회 봉행 예정

불교총지중 총기 49년 추계 강공회가 오는 10월 29일 하루 동안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추계 강공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추계 강공 이후 범공 종령 예하를

비롯해 전국 스승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1년 만이다. 장소와 시간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결정하여 추후 각 사원 및 해당 승직자들에게 상세 안내하기로 했다.

강공회는 전국 전, 현직 승직자들

이 모여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하여 수행을 점검하고, 승단 의사 결정을 하는 종단의 가장 중요한 행사중 하나로 그동안은 1박 2일에서 2박 3일 간 진행되어 왔다. 또 추계 강공에서는 열반 스승 추선법회가 함께

봉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추계 강공회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숙박 없이 하루에 이뤄질 계획이어서, 이에 앞서 10월 13일 제 186회 원의회와 유지재단 회의 그리고 153회 정기 총회의를 역삼동 통리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1시 30분 총지사서 회의에 참석한 승직자 위주로 열반 스승 추선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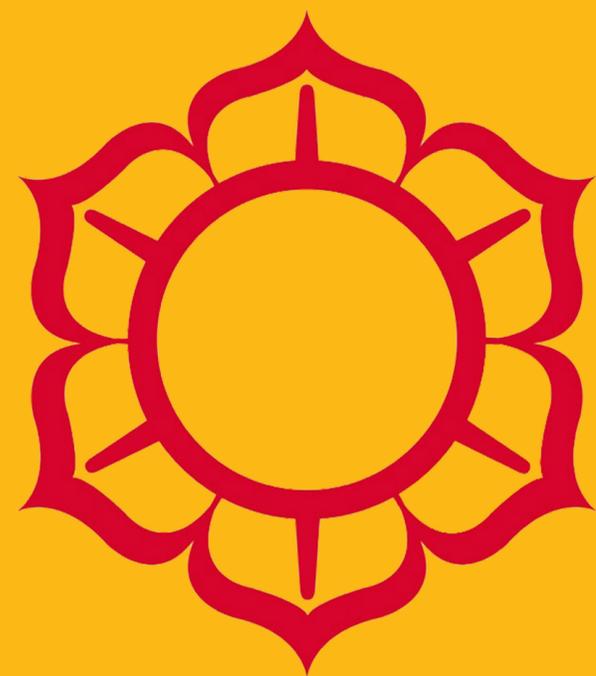
<b>중/조/법/어</b>	노여움을 이기는 것은 인욕뿐이요 악행을 물리침은 선행뿐이다	<b>지 면 안내</b>	5면 서령 정사 이달의 법문 7면 특별기획/스승으로 가는 길	6면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5> 11면 참고도 찾기④ 정각사 신정회
----------------	-------------------------------------	---------------	--------------------------------------	---

# 총기49년 추계 강공회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_ 총기 49년 10월 29일 목요일  
시간/장소 \_ 추후 알림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 총지사 본존 개금, 서원당 보수 불사 불공

## 지난 9월 7일 봉행, 준공 원만성취 발원



총지사 서원당에서 서울경인교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을 봉행하고 있다.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주교: 원당 정사)가 본존 개금 불사와 대대적인 사원 보수 공사에 1980년 10월 28일 헌공 불사 이후 처음으로 앞서 지난 9월 7일 오후 2시에 불사의 원만성

취를 발원하는 불공을 봉행했다.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이번 법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 서울경인교구장 목경 정사 외 교구 스승들과 신정회 김은숙 지회장 등 일부만이 참석했다.

이날 불공은 본존 개금의 원만 불사와 노후로 인한 천장 누수 문제 등 공사 착공에 맞춰 준공까지 무탈하게 공사가 끝나기를 서원하는 불공으로 봉행되었다.

현재 총지사 3층의 서원당은 안전상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층의 종조전에 육자진인 다라니를 모시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불공, 법회 등을 봉행하는 임시 서원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12월 24일에 있는 창교절 이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 2차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 내년 예산, 저소득 가정 지원 등 의결



총기 49년 제 2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정기이사회가 지난 9월 23일 통리원에서 열렸다.

총기 49년 제 2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 정기이사회가 지난 9월 23일 이사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이사 5명과 김우태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에서 열렸다.

참석 이사들은 추경 예산과 내년 총기50년 예산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사원에서

새로 추천된 저소득 가정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1년 간 월 40만원의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하시설인 전주 만다라 요양원 관련, 사무국 실사 후 보고된 요양원 지속 운영의 어려움과 시설 폐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폐쇄를 가결했다.

# 총지사, 불교TV ‘찾아가는 법회’에 방영

## 종령 예하 멀도절 법문, 총지사 소개 영상 등



불교TV ‘찾아가는 법회’ 총지사 방송편에서 법공 예하가 법문 중이다

공 예하의 특별 법문을 녹화, 편집하여 방영되었으며, 이밖에도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의 총지사 소개와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목경 정사와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지회장의 인터뷰가 함께 실렸다.

종령 법공 예하는 이날 법회에서 “종조님께 서 열반하신 멀도절은 종조님의 육신이 멸한 날이기도 하지만, 범룡이 계승된 날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종조님의 정신과 가르침, 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종조님의 유훈 가운데 정진을 인(因)으로 삼고, 계행을 근(根)으로 삼아서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고 법문했다.

한편 방송된 영상은 불교TV 홈페이지(www.btn.co.kr/btmv) ‘BTN붓다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회’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불교TV 인기프로그램 ‘BTN붓다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회’에 지난 9월 24일 총지사(주교: 원당 정사) 편이 방영되었다.

‘찾아가는 법회’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주지 스님들을 소개하고, 감로법문을 듣는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목요일 재방송 10시 30분, 일요일 오후 1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편은 9월 8일 종조 원정대성사 멀도절 추선 법회를 맞아 종령 법

### (주)브릭 “어려운 이웃 위해 꼭 써주세요.”

#### 사회복지재단에 300만원

<주식회사 브릭> 이지연 대표이사가 서울 밀인사(주교: 목경 정사)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대표는 범수연 전수를 만나 “불교총지종 교도는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보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곳 같다.”고 밝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꼭 사용해 달라.”고 성금을 맡겼다.

(주)브릭은 건축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곳으로, 밀인사와 인접한 건물의 공사를 맡아 해오다 인연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수연 전수는 즉시 사회복지재단에 300만원과 함께 이 대표의 뜻을 전달해 왔다.



왼쪽부터 정각사 주교 범경 정사, 신정회 부산경남지회 류길자 지회장, 홍순현 해운대구청장

신정회 부산경남지회(지회장: 류길자)는 각 사원에서 인간방생비로 모여진 300만원을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이웃에게 자비 나눔으로 회향했다.

부산 정각사 주교 범경 정사와 류길자 지회장은 지난 9월 1일 해운대 구청을 방문해 구청장과 만나 관내 피해 상황을 경청하고,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

속한 복구와 구호물자 구입 등에 사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지회를 대표해 성금을 전달했다.

해운대구 홍순현 구청장은 “불교총지종 부산 지역 교도님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구에 임하겠다.”며 “문제 분석을 잘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한국불교종단협 회장단, 국정원 초청 방문

지난 9월 4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환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박지원 국정원장 초청으로 통일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9월 4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했다. 이날 참석한 회장단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국정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과 대답, 조언 등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 통일원장 인선 정사,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박지원 국정원장,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성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정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 미래 사회와 불교

지혜의 눈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 불교세계관, 의미 있게 작용할 것

근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겪는 부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 쇠락하면서 불교에 가해졌던 억압이 풀어지고 서서히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조선은 안으로는 권력층인 노론 중에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가 전개되면서 부정부패가 심화됩니다. 1820년대에는 몰레라가 창결하고 흥년이 겹쳤지만 민생을 무너뜨린 것은 권력층의 타락이었습니다.

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6.25 전쟁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된 전후의 한국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동아시아 대륙의 교두보로 한반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급속한 미국화(Americanizing)로 기독교의 교세가 확산되는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영역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뿌리가 대부분 미국이라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위 삼정의 문란이라는 수탈로 생존을 위협받은 일반민은 화적(火賊), 수적(水賊) 등으로 변신하는데 용화적(龍華賊)도 등장합니다. 민중들에게 저항정신을 제공한 민족신앙은 불교를 넘어 이 시기의 다양한 신흥 종교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으로 비슷한 시기에 경허선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행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조선이 멸망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혼란을 수습했다면 불교는 고려시대와 같은 국교의 위치를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름 영향력을 가진 종교로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소위 G2체제의 성립과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이미 예견된 현상이었고, 한국의 선택이 미중의 패권경쟁에 매우 중요한 가능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라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되었고 한국이 근대화 서구화를 나아가 미국화하는 시기와 정확히 겹쳐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서구 문명 중심의 교육이 아무런 저항과 비판없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전통적인 것은 버려야 할 낡은 것이라며 한국이 지향했던 방향은 정확히 미국화(Americanization)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멸망은 내부의 혼란위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근대화 후 뒤쳐진 조선은 두갈래로 근대 문물의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일본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여러나라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근대 문명의 수용은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그 세력을 동남아시아에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미국도 태평양을 넘어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1905년 카쓰라태프트 밀약에서처럼 협조적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갈등관계로 변화하여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1945년 이후 한국에 대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문명의 범위안에 속해있었습니다. 이제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은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해있는지, 미국 중심의 문명권에 속해있는지 불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불교를 통해 바라보는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미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불교가 가지는 세계관이 매우 의미있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 통리원장, “위안과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길”

지난 9월 22일, BBS 이선재 사장 통리원 방문

BBS불교방송 이선재 사장이 취임 이래 두 번째로 지난 9월 22일 역삼동 통리원을 방문해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예방했다. 이날 이 사장은 박시하 총괄국장, 김상준 TV제작국장을 대동한 가운데 불교방송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사장은 이날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방송 언론이 많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불교방송은 불교충지종과 같은 이사 종단

과 ‘만공회’ 불자들의 후원으로 포교방송으로서의 본분을 잘 유지해 나아가고 있다.”며 종단에 감사의 의견을 전하며 관심과 지원을 바랐다. 이에 인선 정사는 “종교인은 어려울수록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불교 방송도 마찬가지다.”고 조언하고, “우리 교도들도 방송을 많이 듣고,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박시하 총괄국장, 통리원장 인선 정사, BBS불교방송 이선재 사장, 김상준 TV제작국장

## 내마음의 등불

### 네 가지 물음

화음사 보명심 전수 편

- 첫째, 어떤 것이 으뜸가는 재물인가? 셋째, 어떤 맛이 가장 훌륭한가?
- 믿음이 으뜸가는 재물이다. 진실한 맛이 제일 맛이 좋다.
- 둘째,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운가? 넷째, 어떤 것이 가장 오래 사는가?
- 바른 법이 가장 즐겁다. 지혜의 목숨이 제일 길다.

〈잡보장경(雜寶藏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의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화음사 보명심 전수님은 밀인사 법수님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앤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연명료 29

# 장례 산업에 불어오는 새로운 '웰 다잉' 바람

법선 정사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누구나 겪는 죽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장례가 등장하고 있다. 장례란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지칭하는 용어다. 사회의 관습에 따라 장례 방법이 다르고, 종교적 배경이나 관념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우리의 장례 산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 고인들부터 장례서비스 상조까지

우리나라의 장례의 기원은 구석기시대부터 올라간다. 한반도 전역에 퍼져있는 고인돌이 대표적으로 당시의 장례를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화장이 성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유교적 규범에 따라 매장하는 것이 일반

## 웰-다잉 장례식의 대표 트렌드

### ■ 작은 장례식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데 집중한 장례다. 사회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진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추모 모임 형태를 띠며 가까운 지인에게만 부고 사실을 알리거나 습의, 관 등을 간소화하는 형태를 말한다.

### ■ IT기술을 접목한 장례식

한 장례회사에서는 레진 아트와 LED 기술을 접목한 장례용품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고인의 추모영상을 만들어 고인

## 고령화시대, '생의 마무리' 관심 증가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비용 감소세

적이었다. 현대에는 묘지 증가, 후손들의 산소 관리 어려움 등과 같은 이유로 화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17년에는 국내 화장률이 83.4%를 넘어섰다.

이제 장례는 웰-다잉을 향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웰-다잉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면서 자신의 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00 손해보험은 '하늘 소풍 이야기'라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유서를 남기거나 '관'에 들어가 보는 등의 사후 체험을 통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년을 보다 건강하게 보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웰-다잉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고품격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웰-다잉 바람이 불면서 기존 장례문화에 대한 문제점도 하나 둘씩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 등이 장례가 가진 본래의 참 의미를 훼손시키는 요소로 손꼽힌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장례비가 1,500만원, 비용 절감을 위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신다고 하더라도 작은 합한 칸에 1천만 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

의 마지막 길을 배움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블루투스 등 IT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을 위패에 접목해 생각날 때마다 영상과 음성으로 고인을 만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로의 가파른 진입으로 장례 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웰-다잉', '웰-엔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언제가 됐든, 누가 됐든 죽음이라는 자체는 주변인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남기기 마련이다. 나의 마지막이 망연히 슬픔으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의 웰 다잉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람의 생사는 죄(罪)의 경중(輕重)에 있다.

사람의 생사는 범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에 있는 것이다.

생사해탈은 애착에서 벗어나

수인사(修人事) 대천명(待天命)으로

내가 선업정행(善業淨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조금도 애석함이 없다는

사(死)에 대한 공포감이 없는 것이

곧 생사해탈이요, 이것을 행함이 곧 불이다.

종조법설집 p.172



심보이야기 12

# 제8식 아뢰야식의 모습(1) 자상(自相)·과상(果相)·인상(因相)

법선 정사

제8식인 아뢰야식은 매우 광범위한 역할을 하며 그 성질이 광범위하다. 이러한 성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것을 삼상(三相)이라고 부른다. 불교에서는 어떤 대상이나 보이지 않는 심식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8식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삼상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 삼상을 대표하는 것이 자상

세 가지는 자상(自相)과 과상(果相)과 인상(因相)이다. 자상은 제8식 자체에 대한 모습과 성능을 말한다. 제8식의 자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과상은 제8식의

장식(藏識)이라고도 한다.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제8식 아뢰야식을 능장(能藏), 소장(所藏), 집장(執藏) 등의 삼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기서 능(能)은 작용하는 쪽이고 소(所)는 작용을 받는 쪽이다. 따라서 능장이란 모든 선법, 악법, 무기법의 종자를 능히 간직한다.

이때 제8식은 능장이 되고 종자는 소장이 된다. 소장이란 모든 선, 악, 무기법의 종자가 주체가 되어 제8식에 혼입하면 제8식은 혼입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8식은 능히 종자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능장의 뜻이 있고 혼입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소장의 뜻이 있다.

능장은 아뢰야식이 모든 업력을 능동적으로 포섭하고 보존하는 점을 강조해서 표현한 성질이다. 이때 업력을 종자라고

서 과상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제8식의 다른 이름으로 이숙식(異熟識)이라고도 한다.

이숙(異熟)은 범어(梵語) Vipaka로 그 본래의 뜻은 앞의 원인과 다르게 결과가 성숙된다는 의미이다. 이 중에서 앞의 원인이란 과거의 업(業)이고 다르게 성숙한 결과란 제8식 아뢰야식이다.

여기에서 이(異)자는 유식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르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며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일 때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물론 생기지 않게 된다.

원인이 없어진 이후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원인이 없어지고 이에 합당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다르

## 제8식 아뢰야식, 성질과 역할이 매우 광범위한능장은 모든 선법, 악법, 무기법의 종자 간직

과보를 받는 결과와 모습을 뜻하며 인상은 제8식이 모든 업력을 보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업력은 만물을 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제8식의 삼상은 전체적인 모습이며, 이를 대표하는 것은 자상이다. 제8식의 자체의 모습이라는 의미가 자상이며, 자상 속에 과상과 인상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세 가지 삼상은 전체적인 면에서 '따로 따로 작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작용에서 봤을 때 중요한 작용들을 특징지어 설명하기 위한 구분이라고 보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이다.

## 포섭, 함장, 장식으로 설명돼

앞에서 보았듯이 제8식 아뢰야식은 정신과 육체 등 모든 것을 포섭하여 유지시켜 준다는 뜻에서 포섭(包攝)이라는 뜻도 있으며 업력을 보존시킨다는 뜻에서 함장(含藏) 또는 모든 것을 저장한다는 뜻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소장은 능장과는 반대로 아뢰야식이 수동적으로 종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선악업의 종자가 능동적으로 저장되려고 하는 성질을 강조한 것이다. 집장이란 제8식이 아애(我愛)에 의해 집착된다는 뜻이다. 7식 말나식에 의해서 집착되어진 것을 말한다. 아애는 '아(我)'라고 애착한다는 의미이다.

곧 제7식은 아애등의 작용으로 제8식을 나(我)라고 집착한다. 제8식 아뢰야식은 자성정정심. 본래 공한 심성인데, 제7식 말나식에 의해서 염오(染汚) 되어서 아집과 법집, 즉 번뇌장과 소지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나식에 의해서 집착되어진 성질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제8식의 다른 이름 이숙식(異熟識)

두 번째 과상(果相)은 제8식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가 라는 점에 주목해

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원인은 선(善) 또는 악(惡)이었는데 결과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경우이다. 선이라고도 악이라고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기(無記)라고 한다.

이전 생에 지은 선업 또는 악업은 선 또는 악이지만 이로 인해 받은 과보인 즐거움(樂) 또는 괴로움(苦)은 선 또는 악이 아니다. 단지 선업과 악업의 결과로 받은 과보이다.

즉 원인과 결과가 다르게 되어야만 인과의 이치가 성립되며 결과의 입장에서 보면 원인이 다르게 변한 것이 결과가 된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방송

# 만공회

월 1만원 이상으로 만공회 공덕주가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855-3000

## 2020년 BBS불교방송 만공회 출범 5주년

국내 유일의 불교 지상파이자 중앙 언론사인 BBS불교방송은 공익방송, 정론직필 등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참된 말씀을 바로 펴는' 방송사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열린 마음의 해안을 갖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지혜의 힘을 키워주는 방송!

'세상을 맑게하는 글로벌 미디어' BBS불교방송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월 1만원 이상의 후원가족 10만명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 방송포교후원 공덕주를 모십니다.

10만 명이 발심하면 2천만 불자에게 안정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공회 후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BBS불교방송 포교불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 근심, 걱정, 염려



실보사 주교 서령 정사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을 뜻하며, ‘걱정’이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을 의미하고, ‘염려’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을 뜻한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알 것이다. 즉, 내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할수록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 나의 괴로움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예외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노후가 걱정되어 미리 저축하고 계획을 세워둔다면 나의 노후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즉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걱정이 좋은 결과를 낳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저마다의 근심과 걱정거리와 안고 살아간다. 나조차도 작게는 점점 불어오는 나잇살에 대한 걱정부터 크게는 교도 교화, 교세 발전, 종단의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사소하든 중하든 나름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기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던져보려 한다.

매 순간 변화하며 시간 속에 그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내가 걱정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지는 질문을 했다. 내가 걱정만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면 나는 수천 번도 더 근심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 리 없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날 리 없다. 그냥 상황에 맡길 뿐이다. 앞서 예외상황이 있다고 얘기하였다. 하지만 그 예외상황에 또 다른 변수

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노후가 걱정되어 단단히 준비하였어도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을 거란 보장은 또 어디 있는가? 사람 일이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있다. 하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무엇인가? 그냥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겨라. 그것이 답이다.

### 스스로 깨달아야 할 바는 무엇인가?

물건을 먼 곳에 두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성불하기 어렵게 여겨 지지마는, 자성불이 곧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불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진리가 먼 데 있다고 생각한즉, 깨치기가 어렵지마는 만약 생활 중에 있다고 안다면, 곧 능히 체득하여 깨칠 것이다. 극락이 서방 십만 억 국토의 밖에 있다고 여겨진다면, 죽은 후나 왕생할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름지기 자기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음을 알지니라. 현세가 극락인즉 이것이 곧 가없는 고택에서 머리를 돌려져 언덕을 바라보라고 한 비유인 것이다.

<중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27.>

### 1년 전 걱정거리는 무엇이었는가?

질문을 읽고 바로 답한 사람이 있다면 당분간 치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선 나부터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하자면 “글쎄... 뭐였더라?”가 나의 대답이다.

매일, 매 순간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지만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았던 막연한 나의 염려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근심, 걱정, 염려란 그런 것이다. 매 순간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것이다. 독자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걱정하던 문제 상황과 마주하게 됐을 때 나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평온하게, 또 마치 내가 걱정한 걸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때가 있지 않았던가.

우리는 하나의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보게 된다. 머릿속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곤 한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철저한 준비 아닌 준비는 실제 상황에서 써먹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있는가?

집착으로부터 고(苦)가 생겨난다는 것을

## 근심과 걱정은 나의 집착이 빚어낸 고(苦) 중 하나 ‘염려’는 매순간 변화, 시간 속에 그 의미도 달라져

누굴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집착을 내려놓자. 근심과 걱정을 계속 짊어지고 가기에 내가 너무 괴롭지 않은가.

### 가까운 내 마음에 극락을 찾자

우선 1년 전 나의 근심과 걱정거리는 무엇이었던지 물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근심, 걱정, 염려는 매 순간 변화한다. 즉, 그 당시 나의 고민이 현재에 와서는 내가 저런 걸로 고민했다고? 할 만큼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더없이 큰 나의 걱정거리였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그 문제와 마주했을 때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로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어떻게든 상황은 흘러가야 마련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취업준비생이 있다. 이 사람이 취업하기 전까지 최대 고민과 걱정거리는 취업이었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직장인에게 취업이 고민거리인 게 말이 되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심과 걱정거리는

### 하현주 박사의 마음밭 가꾸는 이야기 자비정원(慈悲正願)④

## 진정한 자비가 아닌 유사자비 진짜 자비와 가짜 자비?

티벳 불교의 카규파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교훈 중 ‘유사해서 착각하기 쉬운 것’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그 중 ‘이기적인 행위를 이타적인 행위로 착각하지 말 것’과 ‘집착을 자비로 착각하지 말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로 위지고자 한다면, 어떠한 동기에서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진짜 자비인지, 가짜 자비인지부터 구분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자비의 함양을 위한 불교와 심리학의 학제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필자는 자비와 유사하지만 진정한 자비가 아닌 유사자비(pseudo-compassion)의 개념을 제안한 바가 있다. 자비가 병리적 이타주의의 형태가 아닌, 진정하고 건강한 자비가 되려면, 자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짜 자비를 변별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서 4가지 유형의 유사자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기애적 자비

다른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 받는 이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고 난 후의 뿌듯함과 ‘도움을 주는 착한 자기’ 이미지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는 듯 보인다.

게바우어(Gebauer) 등은 이러한 양상을 공적 자기애(communal narcissism)라는 용어로 개념화한 바 있다. 자신의 중요함과 가치를 확인하려는 동기에서 기인한 이타주의는 병리적 자기애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와 같은 사적 자기애에 비해, “나는 가장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다”라는 공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은 일견 이타적이고 자비로워보일 수 있지만, 도움받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 결여되어 있으며, 타인을 도구로 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시키려 한다는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 2) 반동형성적 자비

프로이트(Freud)와 동시대의 초기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 자비는 잔인함과 무자비한 본능에 대한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실제로 모든 자비가 반동형성인 것은 아니지만, 잔인하거나 인색한 자기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반대로 자비롭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이 드러날까봐 강박적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리며 과잉보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그 자신에게도 비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동기를 점검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 3) 슬픔에 압도된 자비

우리는 흔히 자비와 슬픔을 혼동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을 자비라 여긴다. 그러나, 『청정도론』에 따르면, 자비의 가까운 적은 슬픔이고, 먼 적은 잔인함이다. 고통 받는 생명 앞에서 잔인함이 드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드문 일이지가 먼 적일 수 있지만, 슬픔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자비심을 가질 때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가 가까운 적이 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슬픔이 지나치게 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대처역량은 제한되고, 자신의 부정적 정서 자체를 처리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또한, 상대의 고통을 보며 느끼는 슬픔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자신의 모습과 유사한 고통이 환기되면서 경험되는 전치된 자기연민인지는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

### 4) 자기희생적 자비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기희생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하여 타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도움을 주고, 또 상대방이 이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패턴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도덕적 피학증(moral masochism)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성적 피학증과 달리 과도하게 윤리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고통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학적 성격을 기술한 바 있다.

이들은 고통으로 점철된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끊임없이 도와야만 하는 주변인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무시한다. 동시에 고난을 견뎌내는 자신이 도움을 받는 이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자기희생을 반복하게 된다.

선한 줄만 알았던 자신의 마음에 이처럼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일이다. 모두가 완벽하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매순간 진정한 자비여야만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자비의 실천을 방해할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오늘 내가 실천한 자비는 어떠한 동기에서 우리나라 것인 지 점검하며 자신의 의도를 인식해나가는 노력은, 거울에 묻은 얼룩을 닦아 본연의 맑고 자비로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 2021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2021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동해중학교)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발예정 과목 및 선발예정 인원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 학교	비고
국어	1	동해중학교	
영어	1		
합계	2		

### 2. 응시원서 접수[※우리 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 가능]

**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2020. 10. 19.(월) 09:00 ~ 10. 23.(금) 18:00 【5일간】

※ 공·사립 동시지원자는 (붙임) ‘공·사립 동시지원제도’ 안내참조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2020. 10. 8.(목)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새소식/고시/공고)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공개전형 방법

**가. 추진방법(1차 + 2차 시험 일부 교육청 위탁)**

-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1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차 필기시험 및 2차 시험 중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에 위탁 전형하며, 제2차 면접 시험은 본 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라 실시합니다.
-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은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합니다.

**나. 시험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2020. 10. 8.(목)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동해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끝

##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 좋은 마음이란?

수행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다양한 좋은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4여의족, 5근, 5력, 7각지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 마음들을 좋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 좋은 느낌이 생겨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수행에서는 주로 5력으로 좋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 신심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음은 굳건해집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좋은 느낌을 가져옵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런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신심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써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것과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라. 그럼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너 스스로 취해서 행해보고 그것이 너에게 행복과 복됨을 가져온다고 스스로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것을 믿어라.*

‘알고서 믿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이 무엇이라고 알면 무엇이 무엇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믿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아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알고 믿음은 연결되어 있고 수행을 바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마음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가 처음 태동할 때는 언제나 기존의 가치, 사회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적

의 우선적 가치가 되면 정치권력이 그 종교를 지원합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지배하기 쉬운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리석음의 경향을 보이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마십시오. 믿음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붓다는 ‘믿어라’ 말씀하시기보다 ‘의심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위해서 관찰하고 조사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알고서 믿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 노력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살

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수행하지 마십시오. 지금 단지 수행 하려고 하십시오.

지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은 여러분의 지혜의 수준에서 지금 이 순간 완성된 것입니다.

*“붓다는 어떻게 이 고통의 강물을 건넜습니까?”*

*붓다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강물을 건너면서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고, 애써 강물을 헤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 고통의 강물을 건넜다.”*

중간에 멈추는 것은 수행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애써 강물을 헤쳐 나가려는 것은 욕심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붓다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애써서 수행하지 마십시오. 저의 스승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인이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겁이 난다. 모두 욕심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수행을 해서 차라리 수행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욕심으로 인한 과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단지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림=덕광 정사

## 미래 수행의 완성을 위해 현재의 수행은 말아야 얇과 믿음은 연결... 바른 수행으로 균형을 이뤄

불교 수행에서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균형을 이룬 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심은 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혜는 아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서 믿을 때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맹목적 믿음을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칼라마경에는 믿음에 대한 붓다의 독특한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케사풋타에 사는 칼라마 사람들이 그 곳을 방문한 붓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붓다여! 많은 수행자들이 케사풋타에 옵니다. 와서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비난합니다. 다시 다른 수행자가 와서 먼저 온 수행자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해 혼란스럽습니다. 붓다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붓다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전승되어온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라.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생각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의 스*

으로 노력합니다. 아주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며 자기실현적입니다. 그 종교가 개인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따르고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나갑니다.

그렇게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단이 커지게 되면 처음 가졌던 가치를 가지고는 교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각자 자신의 이상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룰 때 그 무리 안에는 많은 주장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커지게 되고 초기에 가졌던 자유주의적 경향이 교단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교단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좋은 가치들 가운데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을 버리고 점점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믿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아주 쉽습니다. 쉽게 지배되는 피지배인이 됩니다. 진취적이고 자기실현적 가치가 중시되던 종교 초기에는 대체로 정치권력이 이런 종교를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들은 지배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커지고 믿음이 그 종교

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력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을 바른 노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할 때 그 노력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나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욕심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삶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그 노력의 과정은 괴롭습니다. ‘노력의 과정은 괴롭지만 결과만 이루고 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는 환상을 가지고 지금의 괴로움을 정당화시킵니다.

수행도 이런 태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지금은 설령 괴롭더라도 수행을 다 이루고 나면 나는 진정 행복해질 것이다’는 환상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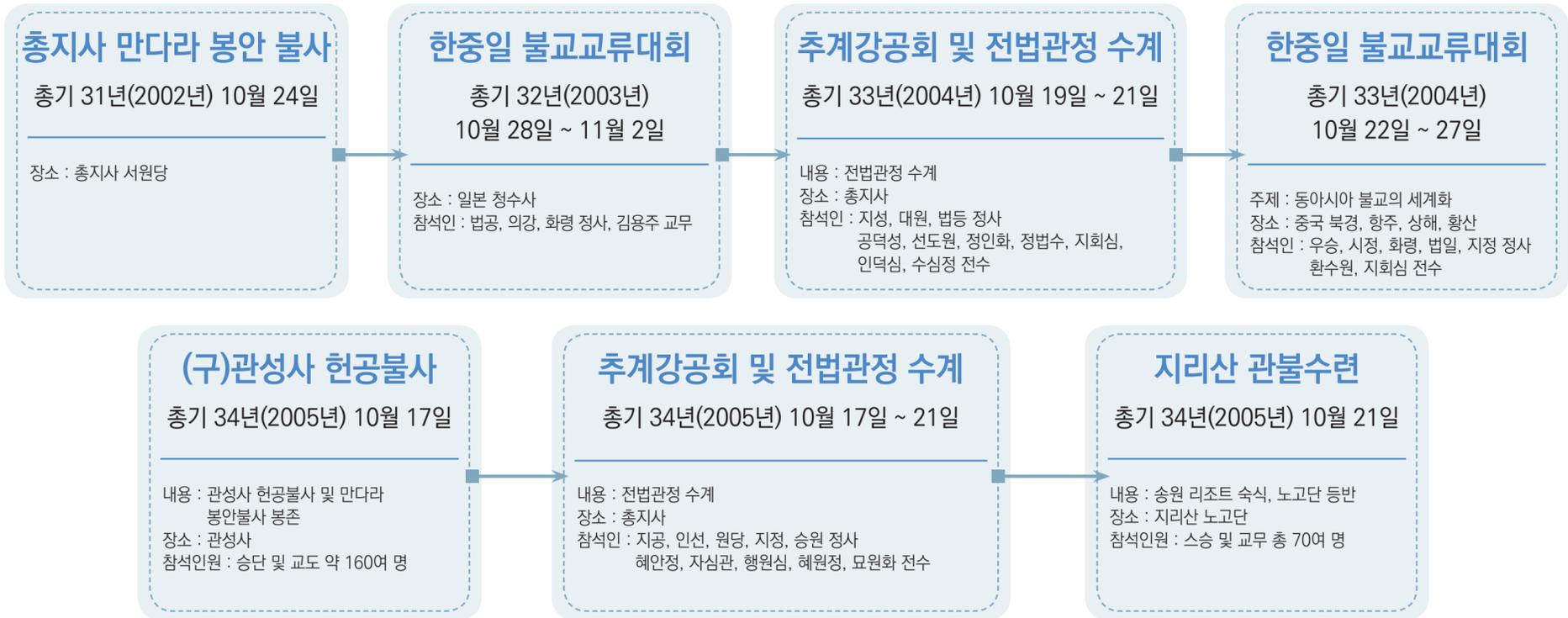
그릇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괴로우면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이 순간이고 수행이 완성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바르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르게 수행하는 것, 지금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입니다. 미래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심념처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연재 제목을 이번호부터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변경합니다. 또 지난 250호 ‘심념처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3>’에서 <4>로 바로잡습니다.

##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



특별기획/ 스승으로 가는 길

# 보살의 행원으로 삼세중에 증생제도를 버리지 아니하겠으니...

오는 10월 12일부터 2년 간 시무(승직의 계를 받기 전에 부르는 명칭)교육이 시작된다. 불교총지종에서 스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교육이다. 흔히 현교의 조계종 등에서 승려가 되기 위해 진행되는 행자교육과 같다. 금번 시무교육은 중앙교육원과 통리원 교정부 공동주관으로 실시되며, 스승으로서 갖춰야할 기초 소양을 더해 수행, 한결음 나아가 설법, 집공, 교화상담의 네 분야에 대한 집중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총기 49년 시무교육 실시 계획을 통해 달라진 교육과정과 불교총지종 스승이 되기 위한 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종단의 성쇠는 스승이 좌우한다.’

‘스승은 매일 교도(教徒)와 접촉(接觸)하는 교화(教化)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명이 중차대(重且大)하고 따라서 종단(宗團)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함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스승은 세간고락(世間苦樂)에 초연(超然)하여야 하며 먼저 자기의 인생관(人生觀)이 확립(確立)되고 그러한 지표(指標)로서 생활하는데 그 스승의 인격(人格)이 완성되고 따라서 이해(利害)의 영욕(榮辱)에도 굴복하거나 동요(動搖)되지 않는 지조(志操) 있고 정의(正義)에 투철(透徹)한 모범적(模範的)인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략) 대승보살(大乘菩薩)은 결코 관념적(觀念的)인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그것을 소재(素材)로 인격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오상성신(五相成身)의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종조법설집 스승의 사명(使命) 중>

종조 원정대성사께서는 스승의 사명에 대해 “종단의 성쇠를 좌우함은 두 말 할 것도 없다.”고 설파하실 만큼 스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다. 특히 ‘스승의 사명’편은 종조법설집에

서도 ‘입교개종의 정신’에 이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장에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종단 내 스승의 존재는 그 자체로 종단의 지속가능성을 갖게 하는 존엄으로 위치한다. 이의 강조와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총기 49년 시무교육의 캐치프레이즈를 ‘종단의 성쇠는 스승이 좌우한다.’로 정했다.

### 수행, 설법, 교화상담, 집공 심화

지난해(총기 48년) 11월, 전국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지사에서 실시된 스승심화교육 후 진행된 스승 교육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스승교육에 있어 △커리큘럼(교과과정) △교원(강사) △교육환경 만족도와 추후 교육 실시에 있어 외부강사 도입여부와 희망 교육 분야를 조사했다. 특히 추후 교육과 관련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스승들은 수행에 관한 교육을 가장 선호(47%)했으며, 교화상담(38%), 설법(32%), 집공(9%) 순으로 응답했으며, 이를 위해 전문 분야의 외부강사 도입도 필요(65%)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해 이번 시무교육은 그동안 기초소양과 불교교리, 사원 실무 등에 대다수의 시간을 할애했던 것과는 달리, 예비스승부터 수행, 설법, 교화상담, 집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질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보강하여 스승의 교상과 사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기초과정 후 실시되는 심화과정에도 역시 각 분야를 교과목으로 반영하고, 수행인터뷰, 설법 발표, 상담사례 토론 및 발표, 집공 시연 등을 집중 연수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 4분 정진 등 사원 일과와 교육 병행

금번 시무교육은 총 2년 과정으로, 기본과정 7개월과 나머지 기간은 심화과정으로 진행한

다는 목표로 기획되었다. 시무교육에 참여하는 예비스승은 종단이 제공하는 사택에 입주하여 분원 총지사 서원당과 통리원 반야실 등지에서 월 1주 집중교육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세 차례 1시간 20분 씩 총 4시간 씩 수업에 참여하며, 평소에는 4분 정진 등 사원의 일과와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 불교총지종 스승이 되는 길

그렇다면 불교총지종 스승이 되는 시무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불교총지종 승직법 제 2장에서 스승 자격 요건(제 6조)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 연령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녀 △ 7년 이상의 교도로서 진실한 품성을 가진 자 △ 사제도를 알아서 스승을 공경하는 자 △ 교의 일체 금계를 준수 실행하는 자 등 총 9항의 요건이 있으며, ‘다만 특수한 자질이 있는 자는 일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종령의 재량으로 등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스승이 되고자 하는 교도는 종단이 요구하는



자료사진=총기 48년 11월 21일에 열린 하반기 스승 심화 교육

## ‘미래의 스승’ 시무 교육, 종지와 종풍 확립의 기본 실수, 발표, 토론, 집공 시연 등 이론, 실습 총 망라

소정의 서류를 소속 사원에 제출하고, 각 교구 회의의 심사 후 추천이 되면, 종단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게 된다. 시무 자격이 충족이 되면, 시무교육 후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정수계를 받아 스승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보살의 행원으로 삼세중에 증생제도를 버리지 아니하겠으니,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이를 극복하겠습니다.(입사선서문 중)’ 불

교총지종이 창종 50년을 앞두고 4대 종책 과제 중의 하나로 승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승직자 교육 강화를 호소한 바 있다. 예비 스승의 적극적인 발굴과 시무교육 역시 교상과 사상을 전수하여 참 스승의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이자,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확립해 나가는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자료사진=총기 48년 10월 23일에 열린 추계강공회

〈시무교육 기초과정 주요 커리큘럼〉

교과 분야	교과목	교재
기초 소양 스승관	스승의 길	특별 강좌
	스승의 사명	종조법설집
	시무의 역할	규정집
교리	불공법	육자의계 염송
	불교일반	불교입문
	밀교와 총지종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종조법설집
수행	총지종 법규	종헌총법 외
	불교수행 일반	멀티미디어 외
	총지종의 수행법	육자의계 염송
설법	불교총진 공부	불교총진
	종조법설집 공부	종조법설집
집공	불사의례	실수

##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I

###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총기 34년(2005년) 10월 24일 ~ 26일

내용 : 한중일 교류 예비회의, 축하 만찬연, 세계평화기원법회(범어사), 문화예술공연(삼광사), 학술세미나  
 장소 : 부산 삼광사, 범어사, 롯데호텔  
 참석인 : 우승, 원승, 법공, 지광, 대원, 우인, 법경, 지정 정사 연등원, 선도원 전수, 장동욱 교무

### 제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경도대회

총기 35년(2006년) 10월 25일 ~ 29일

장소 : 일본 교토, 나라 약사사  
 참석인 : 우승, 원승, 법공, 화령, 시정정사, 선도원 전수 김민호, 장동욱 교무

### 해외불교지도자 한국문화체험(국제재가불교대회)

총기 36년(2007년) 10월 19일 ~ 23일

장소 : 설악산 백담사, 만해마을, 경주 불국사, 석굴암, 정각사  
 참석인원 : 미주 7명, 유럽 7명, 아시아 10명, 호주 1명 등 지역별 초청

###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북경대회

총기 36년(2007년) 10월 25일 ~ 29일

주제 : 부처님의 지혜로 세계화합을 촉진하자.  
 내용 : 세계평화기원법회 및 학술강연회 안내  
 장소 : 중국 북경 보타 낙가산  
 참석인 : 원승, 시정, 경원, 화령, 대원, 인선, 법등, 지공 정사, 황익수 교무

###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총기 38년(2009년) 10월 22일 ~ 26일

장소 : 올림픽파크텔, 월정사, 설악산, 강릉 일대

### 하정 종사 원적

총기 40년(2011년) 10월 13일

입적 : 10월 13일(목) 새벽 3시  
 발인 : 10월 15일(토) 오전 8시

### 불교총지종 40년 기념 통일음악예술제

총기 40년(2011년) 10월 29일

내용 : 식전 행사(메디치 필 하모니 공연), 법회, 합창제(마니, 금강, 만다라 합창단), 축하 공연(주현미, 추가열, 안치환)  
 장소 : KBS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44)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20)

법경 정사(정각사 주교/ 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해등심(海等心)

중생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다. 그 마음을 해등심(海等心)이라고 한다. 어떤 마음인가?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엇을 바다와 같은 마음이라 하는가? 항상 자신을 받아들여 머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받아들여 머무는 것이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일까 아니면 나쁜 의미일까.

후자의 의미에 속한다. 그 의미를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비유하면 큰 바다는 백 개의 하천이 여기로 모여들어 이를 삼켜서 거두는 것이 무한하다. 이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모든 것을 모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언제나 스스로 이와 같은 온갖 좋은 것만을 믿고서 스스로 여기에 묻혀 머문다.’

이 해등심은 모든 것을 다 모으는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자기만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아만심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던 수미산과 같은 마음이다. 즉 아만과 아상이 가득한 마음이다. 수미산은 아상과 아만심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해등심은 아만과 이기심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앞의 (수미산과 같은) 마음에서는 힘써 높혔는데, 이 마음(해등심)은 힘써 넓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다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

아상이 높은 것이 수미산과 같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그 넓이가 바다와 같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무릇 수행자는 아상, 아만,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수미산과 같은 마음과 바다와 같은 마음을 없애야 한다. 『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수행자가 [이러한 마음] 깨치고 나면 삼현(三賢)과 십성(十聖) 등의 한량없이 많은 큰 바다와 같은 공덕이 전전하여 깊고 넓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기심이 가득차 바다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나면 오히려 그 공덕이 바다와 같이 깊고 넓어진다라는 것이다. 불선(不善)을 버리는 것이 곧 선(善)을 얻는 것이며, 악업(惡業)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선업(善業)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작용을 찾아 구하는 데에 일찍이 아직 그 티끌이나 물방울조차도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크게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하였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이루어내었다고 해서 이루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아상을 더 높히고 아만심을 더 넓혀서도 안 된다. 오히려 아직도 제대로 하나 행하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거두어야 한다.

마음이라고 비유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비유하면 완전하고 견고한 그릇의 바닥이 어떤 일로 인해 구멍이 나면 [물건을 담기에] 알맞지 않은 것처럼 이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받아 지니지만 나중에는 점점 [구멍과 같은 것에서] 새어나간다. 혹은 처음에 발심하고 계를 받을 때에는 구축하여 빠뜨린 것이 없었으나 오래지 않아 점차로 새는 법이 생긴다. 이미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법수(法數)는 머물지 않는다. 무릇 이와 같은 예는 모두 구멍과 같은 마음이라 부른다.’

그때그때 달라지고 수시로 바뀌는 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다. 변심(變心)은 굳건하지 못한 마음이다. 그러나 항심(恒心)은 견고한 선정심(禪定心)이며 정심(正心)이다. 바른 신심이며 바른 정진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친소(親疏)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서도 안 되며, 이익에 따라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일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대해서도

혈등심(穴等心)

혈등심(穴等心)은 구멍과 같은 마음이다. 어떤 마음인가? 『대일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구멍과 같은 마음[구혈심]이란 무엇인가? 먼저 결정한 것을 나중에 다시 바꾸는 성품을 말한다.’ 그 성품이란 번덕스러운 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째서 그 성품을 구멍과 같은

일관된 마음이며, 믿음과 수행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를 『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행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 시종일관(始終一貫)하여 고한 보리심을 장애한다고 아는 것이 그 마음(혈등심)을 다스리는 법이다.’ 자주 바뀌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수행에 진전이 없으며 공덕에 선과(善果)가 있을 수 없다. 번덕스러운 중생의 마음을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마음은 경망하고 조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분주하게 달리는 것이 악한 코끼리와 같고, 생각이 빠르기가 번갯불과 같으며, 머물지 않고 요란하게 날뛰는 것이 원숭이와 같으니, 이렇고로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며, 혈등심을 멀리 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며, 율곡은 신심(信心)이요, 깨끗한 정심(淨心)이다. 특히 믿음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어야 한다.

그 마음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깨끗한 믿음은 티끌을 여의고 굳센 마음을 일으키며 교만을 없앤다. 못보배를 정장하는 제일의 법이다.’ 견고한 믿음은 자신의 교만심을 털어내고 공덕을 있는 수행법이다.

『대비바사론』에서는 지혜 보다 믿음을 더 큰 가치로 삼고 있다.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청정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지혜는 비뚤어지고 아첨만을 더할 뿐이니, 그 비뚤어지고 아첨하는 일을 그치게 하는 연유로 믿음이 으뜸이 된다.’고 하였다.

아만심과 같은 해등심을 없애고, 번덕 심한 마음의 혈등심을 제어하는 길은 바른 신심을 갖는 데서 가능하다. 바른 신심에서 해등심이 사라지고 혈등심을 잠재울 수 있으며, 자비심과 이타심이 자란다. 이를 통해 악심(惡心)에서 선심(善心)으로, 간탐심(慳貪心)을 선혜심(宣惠心)으로, 중생심에서 여래심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닦아야 수행자라 할 수 있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간하빠(II)

『84성취자전』을 통해서 인도의 빨라왕조시절 나란다사에 가려졌던 밀교 성취자들의 수행과 성취의 행적을 살펴보면 밀교는 나란다사승원대학의 전통과 같이 계율과 삼장, 의례의 형식 아래 전승되기도 하고, 반대로 형식을 던져버리고 철저히 공성과 생명본성을 직시하려는 고행의 양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밀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모든 종교적 노력은 양 갈래로 나누어지고, 학문이나 미술, 음악도 마찬가지로 클래식이 있으면 자유분방한 재즈가 있기도 하다.

밀교의 경우 나란다사 스승들은 사하자이나와 같은 신티들의 수행을 외면

하지 않고, 성취자들은 붓다와 나가르주나, 삼장의 전승을 중요시하여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 나란다사승원대학으로 제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도불교사를 들여다보면 종파와 종단은 인간 정신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며 어느 한 종파의 수행이 절대 수승할 수 없다.

테라바다와 대승의 논사들도 서로의 체계를 존중해왔고, 현대에도 달라이라마 14세는 국제적인 법회나 도량에서 테라바다의 전통계를 보존하는 절차를 갖춤으로써 양 전통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하고 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과 교류하였던 아암 해장도 유가와 교학에 능통한 스님을 질시하는 선객들을 편협하다 지적하였다. 실천과

무언의 궁극만을 중요시하고 교학과 문화, 의례를 소홀히 한 결과는 불교세의 감소로 나타난다. 인도불교사의 적지않은 굴곡은 세상의 변화에 소홀한 데서 비롯된 교훈을 오늘에 배울 필요가 있다.

간하빠는 매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수행자였다. 고귀한 신분으로 정통한 가르침을 섭렵하였지만 맨실을 손으로 이어 붙이는 성취자 방직공의 신력과 교훈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간하빠는 동쪽 소마뿌리로부터 160킬로 떨어진 반도꼬라로 향했다. 길을 향하던 중 나무 아래 리치를 파는 소녀를 보고 하나를 달라고 했으니 소녀는 거절하였다. 리치는 여지(荔枝)라는 동남

아시아산 열매로 중국어 발음인 '리쯔'를 영어식으로 옮긴 것이다. 달고 독특한 과즙이 풍부해 음료로도 많이 생산된다. 일찍이 양귀비는 리치를 좋아해 매일밤 리치를 나르는 과발마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리치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인연은 시간의 수레바퀴와 같아 생사를 결정할 시기를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시비에 휘말린 간하빠는 염력으로 리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사실상 외도의 사제였던 소녀는 오히려 염력으로 리치를 나무에 다시 달리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분노한 간하빠는 주문을 외워 소녀를 쓰러뜨려 구공으로부터 피를 흘리게 하였는데 이에 사람들은 “불자들은 자비심이 있고, 수행자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였다. 간하빠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반성하여 주문을 그치지 소녀는 그 빈틈을 노려 역시 외도의 주문으로 간하빠를 아프게 하여 출혈토록 하였다. 간하빠는 반대

라는 여성수행자 다끼니에게 부탁해 슈리빠르와파라는 곳에서 그의 상처를 달래줄 약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대는 6개월이 걸려 약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 7일째 간하빠가 소녀를 마주했던 자리에서 이번에는 노인으로 변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반대는 우는 노인을 보고 이유를 묻자, “간하빠가 이미 사망해서 슬퍼서 우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반대는 생각하길, “이제 약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하여 약을 땅에 버렸고 노인은 약을 가져갔다. 반대는 간하빠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갔는데 간하빠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가져온 약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으나 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간하빠는 자신이 남긴 세상과의 마지막 업이 해소된 것을 알았다. 간하빠는 7일동안 추종자 수행자들에게 와즈라바라히 관정을 베풀었고 바로 입적하여 수행자인 다끼의 정도에 환생하였다. 다끼니 반대는 크게 분노하여 소

녀를 찾았으나 신이 사는 천계나 용이 사는 저급한 세계, 혹은 중간계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소녀는 ‘심비라’라고 하는 나무속에 숨어있었는데 마침내 다끼니 반대는 소녀를 발견하고 주문을 외워 나무를 말라죽였다.

『84성취자전』에는 자만과 질투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다. 간하빠는 사소한 마음의 장애를 남기고 있었고 그것이 해소됨으로써 세상과의 운명적 업연을 풀었다. 석존이 입적한 계기도 춘다의 공양 때문이었다. 최근에 창궐하는 우한바이러스는 유래 없는 전 지구차원의 질병으로 개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쩌면 종교를 비롯한 문명의 미래마저 달라지게 하고 있다.

인류의 기술적 네트워크 이면에 담긴 바이러스의 창궐은 언젠가 짙어질 인류의 과제였다. 번영과 생존, 아니면 파멸과 멸종의 갈래에서 인류는 공업과 공존의 과제를 새롭게 새겨야 할 운명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수계사 교도

S-OIL 현곡주유소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 대표 최병철
주소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전화 054-745-5804 / 054-745-3083
핸드폰 010-2877-6137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①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眞理)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많은 불자들이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진리(眞理)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는 <아함경>의 법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기(緣起)란 연하여 일어나는 뜻으로 모든 존재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인연생기(因緣生起)’라고 하며, 줄여서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연기를 깨닫는 것, 왜 중요한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연기의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을 깨달으면 우리는 고정불변하고 절대적인 자아가 있다거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절대자가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존재론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무아(無我)와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無常)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당당히 주체성을 가지면서도 만물에 무한하고 평등한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반년이 넘도록 모두가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류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실을 보면 크다거나 작다거나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하는 관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 나가 세계 모든 공장과 항구를 정지시켰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도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는, 그래서 서로 의존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미진중합사방(一微塵中舍十方)

초기불교의 연기론은 대승의 화엄 사상에 꽃을 피웁니다. 우리들이 많이 독송하는 법성계에 나오는 일미진중합사방(一微塵中舍十方)은 화엄경의 핵심적인 교의(教義)를 드러내는데, 작은 먼지 하나에 온 세계가 담겨 있다는 뜻으로,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세계를 보며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무수한 관계 속에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하나 소홀하거나 하찮게 볼 수 없고 또한 자만하거나 오만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박쥐 등 야생동물에게 있던 것이 가축이나 다른 동물을 매개로 인간의 몸에 들어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부족해진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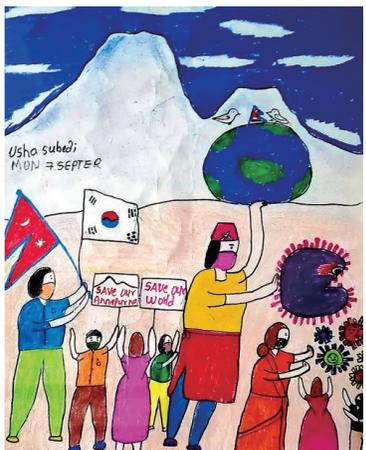
인류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통해 엄청난 편익을 누리는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는 1℃가 올랐고, 이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했으며 폭풍과 해일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고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온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더이상 살 수 없는 땅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선 기후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제는 산속에 있는 절에서조차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례가 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리이타, 멈추고 돌아보자

불교환경연대에서는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지구에 인간만이 사는 것처럼, 생태계를 제멋대로 파괴했던 개발과 성장의 경계를 멈추고,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조건인 줄 알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자연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생명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자비를 증장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이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앞에서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잡보장경>



그림=우샤 수베디(Usha Subedi) 17세, 네팔 부메학교

<필자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소개>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조계종 포교분과위원회에서 재가불자를 위한 신행체계화 연구를 하였으며,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을 역임, 현재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으로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생명살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석사 논문으로는 <안반수의 행법 연구>가 있다.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수미산 신화 속 테마를 찾아가는 여정 티베트 불교와 풍경, 생생하게 담아내

저자 김규현  
판형 172\*220\*30mm / 304쪽  
출간일 2020년 7월 1일  
정가 25,000원  
출판사 마음여행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는 저자가 지난 20여 년 동안 ‘카일라스’ 성산을 중심으로 서부 티베트 고원을 열 차례 이상 순례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수미산이라는 신화 속 테마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불교 경전 상의 수미산을 상징하는 ‘카일라스’를 찾아가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찾아가는 아름다운 마음 여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책의 주제인 수미산 신화 이외에도 티베트에 대한 설명과 티베트 민족의 앞날에도 현실적인 비전을 제

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공저 형식을 택해 페이지마다 담겨있는 다양한 티베트의 풍경과 불교 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저자인 김규현 작가는 베이징 중앙미술대학, 라사 티베트대학에서 수인목판화와 탕가를 연구하고, 1997년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우리 문화와 티베트 문화의 연결고리에 관련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저 거리의 암자

2020년 만해문학상 수상작 시인 신달자

어둠 깊어가는 수서역 부근에는 트럭 한 대 분의 하루 노동을 벗기 위해 포장마차에 몸을 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함께 출렁출렁 야간여행을 떠납니다. 밤에서 밤까지 주황색 마차는 잡다한 번뇌를 싣고 내리고 구슬픈 노래를 잔마다 채우고 빗된 농담도 잔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속풀이 국물이 짜글짜글 냄비에서 끓고 있습니다. 거리의 어둠이 짙을수록 진탕으로 울화가 짙은 사내들이 해고된 직장을 마시고 단칸방의 갑증을 마십니다. 젓가락으로 집던 산낙지가 꿈틀 상 위에 떨어져 온몸으로 문자를 쓰지만 아무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답답한 것이 산낙지 뿐입니까? 어찌다 생의 절반을 속임수에 팔아버린 여자도 서울을 통째로 마시다가 속이 뒤집혀 욕을 개워냅니다. 비워진 소주병이 놓인 플라스틱 작은 상이 휘청거립니다. 마음도 다리도 휘청거리는 밤거리에서 조금씩 비워지는 잘 익은 감빛 포장마차는 한 채의 묵묵한 암자입니다. 새벽이 오면 포장마차 주인은 밤새 지은 암자를 걷어냅니다.

한글불교 대표방송 BTN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BTN 붓다회 방송포교 25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alh 233번 Btv 305번 G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 총지 50년 기획 참교도 찾기 ④ 정각사 신정회

## 지혜의 눈과 자비의 손 '천수천안'이 되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느덧 서원당을 자유롭게 오고 가며 불공을 하거나 도반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신심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웃 종교의 어떤 곳은 교도가 없어 아예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있다. 교도가 없는 사원이나 예배당은 존재하

팍의 한 작은 학교에 회사했다. 정각사는 총지종 부산-경남 교구의 중심사찰이자, 불꽃같은 교화의 중심 사원이다. 정각사의 역사가 종단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면, 정각사 신정회 역시 그 역사의 중심에서 빠질 수가 없다.

일을 비롯해 사원의 대소사에 있어서 공양실을 도맡아 왔다.

스스로 '교화 뒷바라지'라고 겸손해하지만, 시시때때 시간을 내어 손발을 맞추는 일은 사실 보통이 아니다. 이미 가족처럼 어우러진 교도간의 우정은 보통 20년에서 40년을 넘는다.

정인숙 회장은 "교도 한분 한분이 모두 자신의 일, 내 가족의 일처럼 참여하고 있습니다."며, "가정 불공, 경조사 등 서로 돕는 일에서 이제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어 주는 일에도 조금씩 동참하고자 합니다."고 앞으로의 바람을 밝혔다.

이미 지난해만 해도 동지에는 이웃에게 팔죽을 나누어 주기와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 텀플스테이 자원 봉사 등 자비행에 앞장서고 있다.

삼밀수행과 육행실천으로 정진하는 정각사 신정회는 일불제자로서 또 진정한 도반으로서 여느 사원의 신정회 못지않은 귀감이 되어주고 있다.

## 교도에서 도반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내 가족의 일처럼 사회 곳곳에 '자비행'

지 못한다는 걸 코로나가 알려주는 듯하다.

이런 환경에서도 스스로 지혜의 눈이 되고, 자비의 손이 되어 '천수천안' 보살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며 교화의 모범이 되고 있는 참교도들이 있다.

부산 정각사 신정회(회장: 정인숙, 부회장: 박정화, 총무: 구분정) 사람들이 그렇다. 최근 세계의 청정지역 네팔에도 코로나19가 미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솔선수범하여 돕기에 나서면서, 정성으로 모은 신정회 기금을 네

특히 지난해 정각사 특락전의 상량부터 헌공까지 불사를 봉행하고 성스러운 기도도량으로 완성되기까지 신정회는 누구보다 앞서 최선을 다하고도 회비로 1천만 원을 회사했다. 최근에는 상반기 49일 불공 후 무상함을 통해 모금된 인간강생비를 부산경남지회에 전달하여, 태풍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정각사에서 공양 한번 받아 본 사람은 그 정성과 맛에 오랜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정회는 자신

정각사=박재원 기자

## 종조멸도절 40주기 추선법회



총지사



정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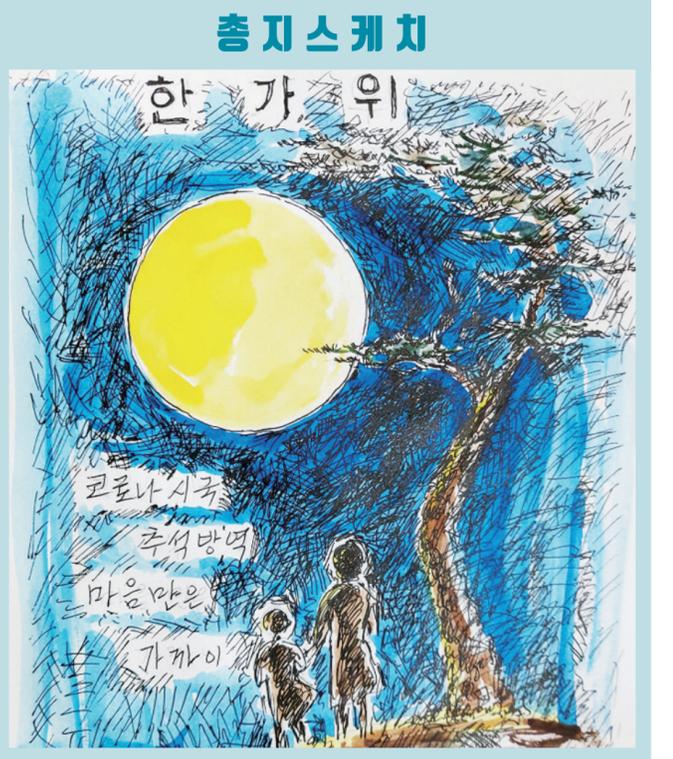
만보사



자료사진=총기48년 12월 22일 동지 팔죽 나눔중인 정각사 신정회



자료사진=총기48년 5월 6일 정각사 특락전 봉안식에 앞서 복장식을 봉행중이다.



### 총/지/문/답 ②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 불전의 존상과 탕화

불전(佛殿)은 부처님을 모셔놓은 집이며 본존(本尊)은 불전에 모신 부처님 중에서 으뜸이 되는 부처님을 말합니다. 불전에 어떤 본존을 모시느냐에 따라 불전의 이름과 부처님의 좌우에 모시는 보살(협시보살), 본존 뒤에 모시는 불화(후불탱화)가 달라 집니다.

불교총지종은 법신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법신불의 별문별덕(別門別德)인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오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하고 불전의 이름을 '서원당'이라 합니

다. 좌우협시 후불탱화로 대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를 모십니다. 총지종의 '득락전'(得樂殿)은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좌우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십니다.

### 전통사찰 전각이름과 본존

전각이름	본존	좌우협시	후불탱화
대웅전(대웅보전)	석가모니불	가섭존자, 아난존자 / 문수보살, 보현보살	영산회상도
대적광전 비로전/대광명전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 문수보살, 보현보살	삼신탱화회엄탱화
극락전	무량수전 미타전, 수광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극락회상도 아미타삼존 탕화
약사전 유리전	약사여래	약왕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약사유리광회상도

##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참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인민의 정진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 '음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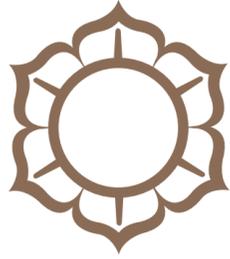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b>서울,경기교구</b>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b>충청,전라교구</b>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b>대구,경북교구</b>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삼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b>부산,경남교구</b>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화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로4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종보실
- Tel: 02-552-1080
- 보낼 곳: 우편 및 이메일
- E-mail: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손  
心

指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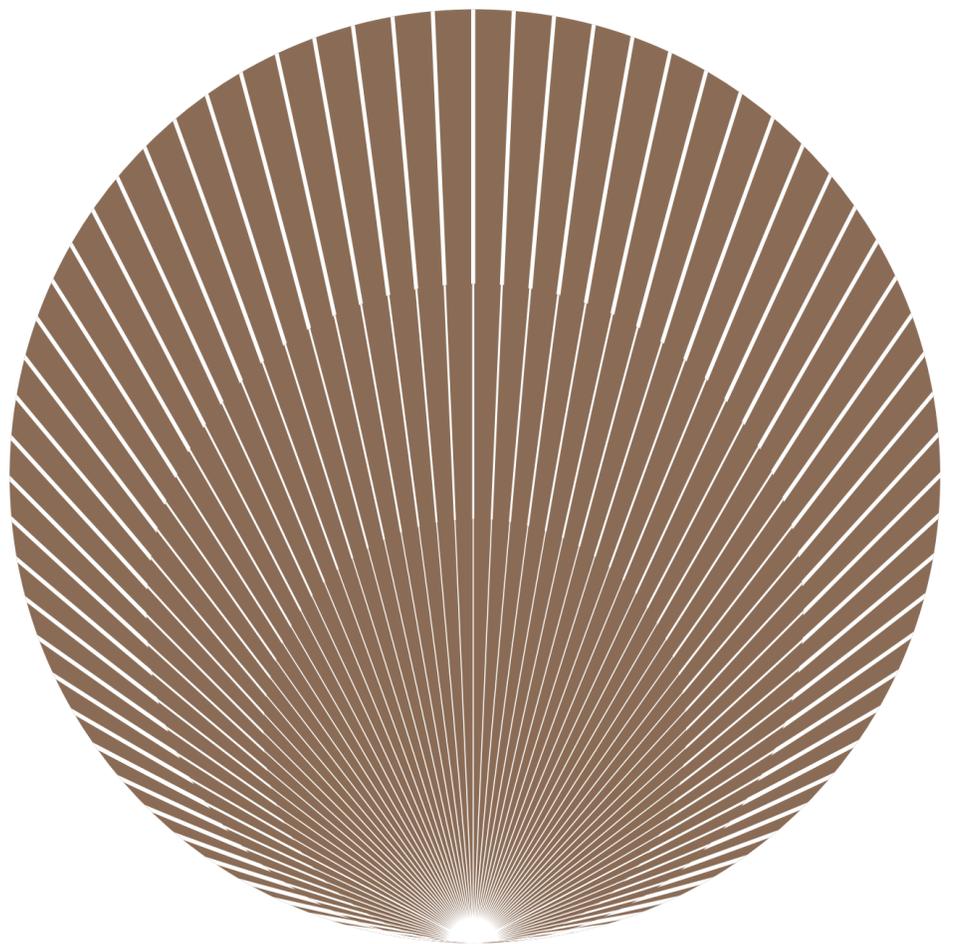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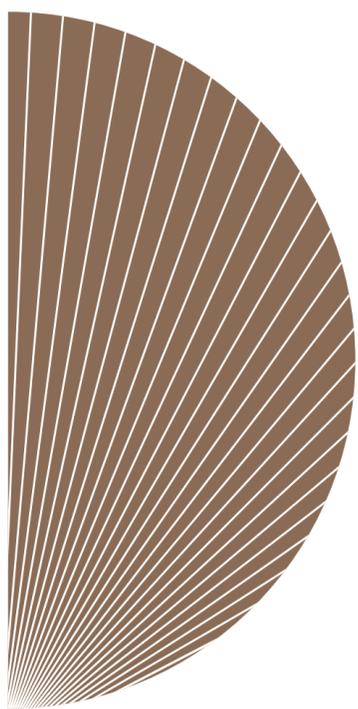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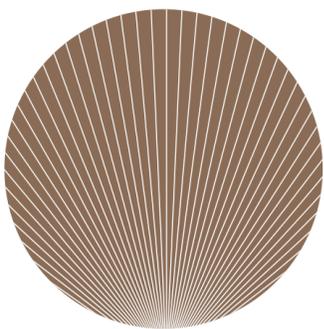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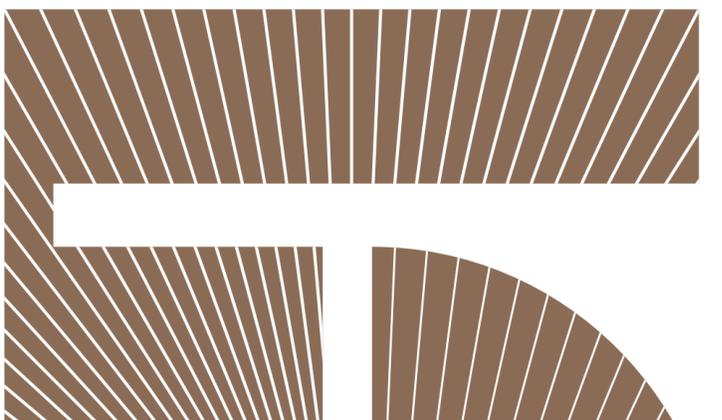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  
止

史



마감 일정

2020. 10. 31.

